

그린스마트학교 선정관련 연희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 결과보고

〈간담회 개요〉

- ▶ 명 칭 : 그린스마트 학교 선정관련 연희초등학교 긴급 학부모 간담회
- ▶ 일 시 : 2021. 9. 3.(금) 10:00~11:30
- ▶ 장 소 :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
- ▶ 참 석 자 : 11명
 - 간담회 주재 : 양리리 의원
 - 연희초등학교 학부모 등 관심있는 주민, 기자 등 10명

회 의 록

(10:00 간담회 시작)

(양○○ 의원) 그린스마트 학교 선정 관련 학부모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관련하여 참석 인원을 제한하였고, 추후 오늘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18조5천억의 교육부(청) 예산이 소요되는 노후화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학부모 우려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서울시 전역에서 올해 35개 학교를 선정했고, 그 중 서대문구의 40년 이상 노후화 학교는 5곳(북가좌초, 연희초, 안산초, 연가초, 중앙여고)으로, 북가좌초와 연희초는 개축으로, 중앙여고는 리모델링으로 추진으로 알고 있음. 북가좌초는 8.27.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으나 연희초는 사업설명회가 없었고 개학전날 학부모 알림문자로 일방적으로 통보받아 혼란 초래. 교장 및 교감은 9.1.자 발령으로 걱정 증가.

(김○○) 개학 하루전 통보로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됨. 심지어 학교운영위도 몰랐을 것으로 추측함. 이 사업의 실질적 대상인 학부모가 전혀 모르는 상태로 1년 동안 진행되었음에도 개학 하루 전 알리미를 통해 통보되어 당황스러움. 2년 후 전학은 학부모 입장에서 혼란스럽고 엄청 큰일임. 아이들 정서가 중요한데, 결정 되었으니 해라는 식의 통보가 어이없음. 예비 초등부모들 중에 여기 입학시키려고 이사 온 사람도 있는데 갈 곳이 없어짐. 아이들 교육뿐 아니라, 학부모의 일상, 직장과의 거리 등 학부모 및 학생의 모든 생활 패턴이 어그러짐. 교육청 발언은 미시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며 학부모의 이기심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여론몰이 함.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행복, 학습권을 위해 발벗고 나섰으나, 교장, 교감 전출로 우리들은 고립되어 황당하고 어이없음.

(안○○) 연희동 주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음. 내년 입학 예정인 예비 초등학교 학부모로서, e알리미가 뭔지도 몰랐고 이번 사건은 건너건너 알게 됨. 연희동이 살기 좋고 아이키우기도 좋은 동네라 생각했는데, 너무 커다란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난 것에 대해 놀람. 학부모 입장에서 너무 화가나 피켓을 들고 시의회 방문. 연희초는 학부모 모르게 이미 진행된 부분에 배신감이 듦. 서대문에서 철회공문요청하기를 희망함. 학생들의 강제 전학과 입학생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강력 항의하는 피켓 시위는 지속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일상 생활이 무너지고 있음.

(양○○ 의원) 학부모 입장에서 졸속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심. 1년 전부터 진행되었으면 학교에서 학부모, 학생의 수렴절차를 거쳐서 대책마련을 위한 설명회가 필요했음. 내년부터 아이들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모든 동선을 아이로 맞추어 아이 중심 생활을 하고있는 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행정임. 학생의 주소지가 어디냐에 따라 어느 학교로 전학을 가는지 등 내용을 알아야 학부모가 준비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어제 교육청에 확인함.

(정○○) 이건 정말 어이없는 일로 문책이 필요함. 아무런 공지도 못받은 예비초등학교 학부모까지 포함 4살에서 초3까지 모두 해당하는 일임. 이것은 절차가 잘못되었음. 예비초등학교 학부모까지 고려하지 않음. 말도 안되는 일이고,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됨. 가정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로 아이들 정서가 고려되지 않음. 그린스마트의 초점이 아이라면 지금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중요함. 이름은 그린스마트인데 목적이 아이들 중심이 아니라 흐뜨러져 있음. 목적이 아이라면 연희동 주민에게 어떻게든 설명했어야 함. 최소 유치원에는 미리 공문으로 공지했어야 함. 우리동네가 교육열이 센 곳도 아니고, 아이들 스트레스 안받고 공부하게 하려고 여기 와서 사는 것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마트가 아니라 소통임. 사람이 잘해야 오래가지, 기술이 좋은게 다가 아님. 시설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노력이 필요. 호화로운 시설만으로 아이들 지원 한계.

(양○○ 의원) 연희동이 부촌이라는 이미지와 학구열이 셀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이문제가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지고 있음

(정○○) 다른 학교는 리모델링 때문에 반대하지만, 우리는 개축으로 인한 강제전학 때문에 반대하는 것임.

(양○○ 의원) 연희초 학부모 집단이기주의로 오해받고 있음. 핵심은 강제 전학으로 대안이 있느냐가 중요하나 대안이 없음. 구의원으로서 안타까움. 섬세한 행정과 대안이 필요하나 절차가 없었음. 창서초로의 전학을 이야기하는 학부모도 있었는데 구체적 방안이 없음. 교육부, 교육청, 구의회, 구청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차년도에 스쿨버스 등 관련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임. 그러나 방과후 아이들 동선을 짤 수가 없어 학부모는 불안함. 이는 단순히 아이, 학교문제가 아니라, 일상 전체의 문제임. 기존 아이들 전학에 대한 타학교와의 협의가 없었고, 이에 대해 구두로 확인한 사항과 별도로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신청한 상태임.

(김○○) 강제 전학에 대한 대안이 있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학부모도 있음. 입학시 졸업까지 예측하지 강제 전학에 대한 당연시하는 것도 문제임. 인간중심 교육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음

(김○○) 이 사안에 대한 학부모의 난감한 사안을 구청장이 알고 있는지 궁금함. 연희초 상황에 대해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줄 수 있는지도 궁금함. 구청장이 북가좌초 앞에 놓인 근조화환이 보도블럭을 침범했다고 치우라고 했다고도 들음

(강○○) 동장인 듯한 사람이 나와서, 구청장이 궁금해 한다고 시위사진을 요청함. 정말 그런건지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이 필요함.

(양○○ 의원) 구청장이 인도 보도블럭을 침범하니 시위관련 설치된 근조화환을 치우라고 했다는 말은 낭설이었으면 좋겠음.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임. 북가좌초 관련 이 사항은 구청장 지시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지에 대한 사항은 전달 및 확인하겠음. 구청장

생각은 모르며 구청에서도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음. 교육지원과에서도 하나씩 상황 파악 중으로 알고 있음.

(홍○○) 연희동에 오래 거주하였음. 예전 분교가 되었을 때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했음. 아이들 전학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줌. 학교가 강제 전학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강○○) 아이에게 학교시설이 좋게 바뀌기 위해서 전학가야 한다고 이야기 하니, 시설이 좋아져도 친구가 없으면 다 무슨 소용이냐? 라고 어른들보다 더 솔직하게 표현함. 전학가고 싶지 않다며 불안해하고 있음. 주체가 아이들이어야 하나, 현재는 아이들은 무시하고 건축사업만 고려되었음.

(정○○) 학교 안전등급은 현재 B등급으로 알고 있음. 관리만 잘해주면 오래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었음.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없는데 전학까지 갈 일인지 이해가 안됨.

(양○○ 의원) 큰 변화의 물결에는 명분과 명확한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안타까움. 40년 아파트도 고쳐서 쓰는데 연희초는 끊임없는 개보수로 깨끗한 편임. 사업 대상이 개축까지 할 대상인지, 다른 더 노후된 학교가 많음. 강제전학까지 하면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쟁점사항임. 학부모입장에서는 아이들 정서가 제일 중요함.

(옥○○) 연희초, 그린스마트 학교 관련 북가좌초와 충돌한 적이 있음.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 같음. 연희초는 전면을 부수는 개축이며 북가좌초는 기존 건물 활용하여 반씩 나눠서 공사하는 것임. 개보수의 주체는 아이들과 학교로 발표되어 있음. 그러나 아이들은 배제가 되어 있었음. 학부모도 활동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음. 이런 내용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음. 시의회, 구청장, 해당 주민들 간담회와 의견 수렴이 필요. 전달하는 역할을 의원이 해줬으면 좋겠음.

(양○○ 의원) 가치 차이에 있어 대립할 수는 있음. 진영 논리로 가면 학부모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음. 구청장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구청장 주재로 간담회, 의원 주재 간담회에 게스트로 구청장을 초청, 줌회의 등 방법을 고민하겠음. 구청장과 의 간담회는 확실히 추진하겠음. 지역 주민들이 생생하게 의견 전달, 연희동 주민이 모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갈등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함. 문서파로 실질파로 우려가 되지만 팩트 중심의 서류만 봐도 정서적 문제에는 공감함.

(정○○) 그린스마트 사업은 혜택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음.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은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데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접근.

(김○○) 연희초는 학년별 5~6학급 25명 내외임. 최소 인원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됨. 연희초는 운동장도 넓음, 분리막으로 나눠서 건축하는

등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일방적으로 전체 학부모에게 통지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됨.

(김○○)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토록 되어 있으나, 교육청은 수요 조사를 거쳐서 진행하였다고 함. 우리는 자세한 내용을 몰랐음. 관련 기관들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이는 절차상 하자로 원점부터, 철회공문으로 완전 백지화 후 재검토가 필요함.

(양○○ 의원) 철회 요청서는 학교에서 제출 가능함. 제안하면 학교 소속자와 논의하여 철회 요청 제출하여야 함. 교육감의 해명과 사과가 필요. 구청장 면담은 주선하겠으며 교육청과도 논의를 해보겠음.

(안○○) 지금 제일 시급한건 저학년, 예비 초등학교 엄마임. 학교운영위원회가 움직여야 함. 비대위라 접촉에 한계가 있음.

(양○○ 의원) 학교운영위는 대표성이 어려움. 운신의 폭이 좁으며 책임문제가 있음. 비대위가 결성되어 있으면 많은 동의자의 서명을 받는 게 필요함. 시의원 등에게 오늘 영상은 전달토록 하겠음.

(옥○○) 초창기 근조화환을 세울 때, 정치권에서는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각이 저변에 깔려있음. 교육은 정치에 휘둘리면 안된다고 생각함. 지역 연회초 학부모와의 간담회, 구청장, 시의회 간담회가 필요. 이 사안에 대해 알리는 게 필요함.

(양○○ 의원) 오늘 소통을 통해 학부모의 감정을 직접 느낄 수 있어 좋았음. 전달이 된다면 개선 가능하다고 생각함. 미숙한 일 진행으로 학부모가 힘들어짐. 안전등급, 안전진단 내용은 서류를 받아서 확인해 보겠음.

(김○○) 공식 문서(안전등급)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함. 40년이란 숫자에 너무 연연함.

(양○○ 의원) 숫자에 얽매인 불필요한 예산 낭비임. 지역 상인들도 많이 전화하여 의견 전달함. 연회초가 있어 학부모, 아이들이 모여 지역 상권이 유지. 상인들 의견 수렴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구청장, 교육청 관계자 간담회를 마련토록 하겠음. 시의회 시정질의 등 내용도 공유하겠음. 이번일을 계기로 구의회에 관심을 가져주면 감사하겠음.

(11:30 간담회 종료)